

西獨의 石油政策

1. 역사적 背景

西獨에서는 제 2 차 대전후 국내에서 油田이 잇달아 발견되어 석유개발 붐이 일어났으나, 패전국으로서 해외진출은 늦어지고 있었다. 1950년 대부터 1960년까지의 西獨정부는 국내石炭産業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原油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산原油도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EC제국의 협약에 따라 1964년 이후 이 관세는 폐지하게 되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협의에 의해 석유개발업계의 해외투자에 대해 성공불 용자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측이나 민간측의 투자액이 명확히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7년 불경기를 맞게 되자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 동안에 西獨 석유시장에서 民族系 석유회사는 外資系회사에 매수되거나, 침식되어 시장점유율이 25%까지 감퇴하자 정부도 마침내 民族系 석유회사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신중히 모색하게 되었다. 즉, 西獨 경제성은 1969년 2월, 민족계 회사와 협의하여 石油政策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석유정책의 목표로서 1) 제품가격의 인하 2) 석유가격의 안정 3) 民族系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내세웠다. 한편, 해외에서의 탐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8개 民族系회사가 공동출자하여 Deminex社(독일 석유공급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지닌 西獨의 기본석유정책은, 정부의 조성에 民族系 석유회사가 협력하여 2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Deminex社를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탐광활동

을 적극 추진, Deminex社로 하여금 국내 원유처리량의 1/3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西獨의 에너지 정책중 특이할만한 것은 철저히 自國産 석탄을 보호·이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1차 에너지의 약 절반을 수입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나, 30% 정도를 石炭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20% 정도는 天然가스, 原子力, 水力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西獨의 국내탄 보호정책은 안정보장과 실업대책, 풍부한 매장량이라는 세가지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에 7천만톤의 石炭이 소비되었으나, 약 절반이 발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제철용으로 사용되었다. 수입탄에 대해서는 할당범위를 설정하여 국내탄을 보호하고 있다.

2. 石油市場구조

西獨은 EC제국의 최대 에너지소비국(1980년 석유환산 2억6,900만톤)이며 또한 최대 석유소비국(1980년 1억2,800만톤)이기도 하다.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石油의 비중은 1979년 51%에서 80년에는 48%로 저하하였다. 西獨의 석유시장의 특징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자유경쟁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징은 기업이 석유시장에 침투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가격형성이 自由化되어 있다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다.

西獨의 정제능력은 하루 약 302만배럴(80년 기준)이며, 정제기업은 <表-1>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表-1〉西独의 精油社別 정제능력

| 회 사 | 정제능력(b/d) | 점유율(%) |
|------------------------------|-----------|--------|
| Caltex | 90,000 | 3.0 |
| B. P. | 371,450 | 12.3 |
| Shell | 330,000 | 10.9 |
| Texaco | 105,000 | 3.5 |
| Esso | 485,000 | 16.0 |
| Mobil | 235,000 | 7.8 |
| Marathon | 70,000 | 2.3 |
| Elf | 169,000 | 5.6 |
| Veba | 274,000 | 9.1 |
| Wintershall | 207,850 | 6.9 |
| Union Rheinische Saarland | 125,000 | 4.1 |
| 기 타 | 80,912 | 2.7 |
| 計 | 3,021,247 | 100 |

(1980년초 현재)

석유공급은 수입이 96%, 나머지 4%는 국산원유로 조달하고 있다. 原油수입 구조는 크게 변화하여 50년대에는 80%를 中東에서 수입하였으나, 70년대에 와서 리비아를 중심으로한 北아프리카산 原油의 수입이 급증하여 79년에는 41%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中東産 원유는 약 50%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석유제품 수요 약 30% 정도를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휘발유와 경유를 메이저계열과 다수의 대소 수입업자에 의한 탄력적인 공급 시스템을 통해 주로 로테르담 現物市場에서 수입하고 있다. 정제와 무관계한 약 100여개에 달하는 독립계 석유수입·판매업자의 존재는 西独 석유시장의 특색중의 하나이며,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있다. 제품수입에서 차지하는 이들 업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80년에는 약 50%에 달했다.

西独의 휘발유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60년대말부터 주유소의 수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69년말 주유소의 수는 4만 7천개소가 있었으나, 80년 초에는 2만 6천개소로 감소하였다. 특히 Self Service 주유소가 급속히 보급되어 80년에는 전 주유소의 40%가 Self Service化 되어 그 판매점유율도 70-75%로 경이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다.

3. 石油政策의 전개

西独의 石油政策의 특색은 국내원유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西独 정부는 시장의 완전자유 경쟁체제는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급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석유시장에 대해서, 가격 및 판매면에서 직접적인 통제나 개입은 하고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경쟁적이면 價格은 자유시장 쪽이 통제시장보다도 유리해질 것이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西独의 석유제품가격 수준은 EC 국가들보다도 낮았다고 經濟省은 발표하고 있다. 西独의 자유시장은 현실적으로 석유의 안정공급과 석유업계의 하류부문에 있어서 수익향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자유시장 유지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1) 모니터 시스템으로서의 『Information System』

1974년 이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매분기마다 석유정제 판매업자는 經濟省에 코스트, 가격, 수익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고, 경제성은 이 결과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쾰른大學 에너지經濟研究所가 업계의 평균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다.

(2) 독점금지법상의 체크

經濟省 카르텔庁 관할하에 독과점에 의한 시장 지배와 不公正 거래를 체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가격인하등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1979년에 석유업계의 높은 수익에 대해 업계와 카르텔청간에 논쟁이 있었다. 이에 카르텔庁은 비공식적으로 석유기업을 조사하였으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회계상의 체크

세법상의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인 메이저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체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가격형성과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는 西独의 石油政策도 제 1차 석유위기 이후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었다. 1973년에 책정된 정부의 에

□ 海外石油政策 □

너지 프로그램은 74년, 77년의 개정을 거쳐, 79년에는 에너지 절약과 脫石油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이 강력히 가미되었다.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투자보증, 전력·석탄 양업계의 장기거래협정의 강화와 정부의 조성등이 그것이다. 80년대의 石油政策의 기초는 시장경제정책의 견지와 石油産業의 다극구조의 유지, 가격형성에 대한 정부의 비개입 등을 원칙으로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의한 안정된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종래의 기본노선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原油 베이스의 안정공급을 꾀하기 위해서는 Deminex Program을 강화, 해외탐광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80년에는 약 220만톤을 생산하였으나, 현재 13개국에서 22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北海 및 수에즈연안의 탐광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西獨의 석유제품수요는 79년부터 90년까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휘발유는 약간 증가할 것이나 경질연료유가 같은 기간에 40%, 중질연료유가 4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당면 기대는 경제능력의 원활한 축소와 시장구조에 맞는 정제구조의 개선에 두고 있다. 한편 西獨의 石油政策중 또 하나의 특색은 에너지의 石油의존도를 낮추려는데 있으며, 이러한 대응책으로 石炭,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과 석유소비의 절약을 내세우고 있다.

석유절약에 대해서는 고가격화에 의한 소비억제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소비규제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인 소비절약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단열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건축물, 주택의 단열제, 난방시스템의 개선,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원조, 지역

난방에 대한 기금제공, 석탄 액화기술 개발등을 들 수 있으며, 수송부문에서는 소비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설정등 세심한 시책을 펴고 있다.

4. 石油價格제도

西獨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價格統制는 없으며,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다. 또 공급자가 석유시장에 무제한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시장 시스템이 공급구조의 복잡성을 낳고 있다. 기업의 구성은 정제·판매업자·수입업자·증개상 등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1979년의 경우 石油 내수량의 33%가 제품·반제품의 형태로 수입되었으며, 이중 약 50%는 약 100여개사에 달하는 수입업자가 들어온 것이다. 수입지역별로는 EC제국에서 약 1/3을 들여왔으며, 특히 로테르담 지역에서의 수입량은 42%나 되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西獨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로테르담 시장가격과의 상관도가 높고, 특히 수입비율이 높은 난방유는 로테르담 가격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코스트를 분석해 보면(1979년 기준), 原油代 55.8%, 정제비 9.0%, 반제품 7.9%, 제품구입 20.8%, 판매관리비 6.5%로 되어 있다. 세금공제전 이익은 매출액의 3.9%로 나타났다. 유종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휘발유 22.3%, 경유 11.3%, 난방유 34.6%, 중유 11.4%, 기타 20.4%이며 국내석유제품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휘발유 17.7%, 경유 9.4%, 난방유 38.6%, 중유 17.1%, 나프타 4.4%, 아스팔트 3.0% 기타 9.8%로 되어 있다. *

(주간석유에너지정보)

나라위해 바친 희생

한맘으로 보답하자